‘군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시행 이후 금융기관 저축 증가…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효과
가맹점 1만여개 넘어서…모바일 상품권 내달 2일 출시 예정

군산시가 지역내 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여신(대출)은 감소한 반면 수신(저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한국은행 자료와 비은행 예금금융기관 12개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금융기관의 수신 비율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월 대비 1.7%, 0.6%, 0.4%로 감소한 데 비해 군산지역 금융기관은 2.4%, 2.5%, 2.0%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수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억원(8.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 할인판매 되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관내 가맹점으로 제한하면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제2의 통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가맹점은 1만여개를 훌쩍 넘어섰고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일부 가맹점들은 가맹점 플래카드 및 배너 등을 자체 제작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임을 홍보하고 있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 이용 편리를 위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다음달 2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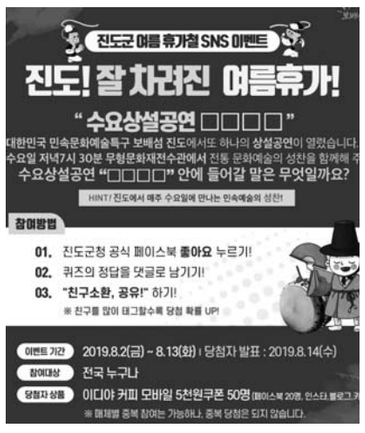
또 “종이 상품권 역시 휴대가 불편하던 점을 개선해 현재 지폐 크기와 동일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지역 상품권 Chad’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가상계좌 입금이나 본인 계좌연결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구입한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진도만의 특색있는 멋 홍보해주세요”

군, 휴가철 SNS 퀴즈 이벤트…50명에 커피 제공



진도군이 13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SNS 퀴즈 이벤트〈포스터〉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물놀이장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도만의 특별함을 알리고자 이벤트를 연다.

참여 방법은 퀴즈의 정답을 진도군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 된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이디야커피) 5천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4일 각 SNS 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진도군 홍보담당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진도만의 특색 있는 멋을 널리 알리겠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익산시, 2023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심어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 283억원을 투입해 나무 심기와 함께 산책로·쉼터 조성, 시민참여 숲을 병행한다.

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이리북중학교과 남성중학교, 이리북초등학교, 여산중학교 등 4곳에 명상 숲을 조성했다.

아울러 국도 26호선 구간과 폐 철도를 활용해 12만8000여 그루를 심었다.

이와 함께 시민들도 함께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약 8000 그루의 나무를 분양했다.

시는 하반기 나무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제3일반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일원 1.5㏊ 구간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3만여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10곳을 활용한 나무심기와 명상숲,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이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예술체험 문화마을 조성하는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사업을 착수했다.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변에 조성된 섬진강군민체육공원. 〈순창군 제공〉

순창군,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사업 착수

자연경관 테마로 관광인프라 구축·예술체험 문화마을 조성
5년간 사업비 56억원 투입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순창군이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예술체험 문화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한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강천산과 온천관광밸리, 고추장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발효테마공원), 건강장수연구소 쉴랜드 등에 편중된 1일 관광벨트를 동부권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체험형 체류 관광지로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한창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이다. 국비 28억원을 포함, 사업비 5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군은 2014년부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지속해서 방문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이듬해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에 반영시켰다.

주된 사업으로는 지역 내 섬진강 24㎞ 구간을 4가지 테마로 구성하고 동계면 구미마을 ‘한옥예촌’, 적성면 구남마을 ‘섬진강미술촌’, 유등면 오교리(체육공원) ‘강변예술쉼터’, 풍산면 향가마을 ‘소울터널 무인공방’ 조성이다.

군은 섬진강 곳곳에 문화예술 거점을 만들어 자전거 라이더와 관광객,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테마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해 정주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보탬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섬진강 변의 용궐산 자연휴양림과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 미술관, 채계산 출렁다리, 향가유원지(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치매 어르신 안전 귀가 돕는 해남군, ‘배회 인식표’ 보급 눈길

해남군이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배회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남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등으로 길을 잃고 실종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배회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다.

배회 인식표란 치매환자 또는 실종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표식이다.

이름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를 코드화한 고유번호가 적혀 있으며 다리미를 이용해 옷에 쉽게 부착 할 수 있다.

배회하는 증상 또는 사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등록된 치매 환자 1646명 중 200명에게 배회 인식표를 우선 제공했다.

미신청자 1294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역주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치매환자 실종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뽑는다

시, 31일까지 출향인 대상 8개 부문 추천 받아

정읍시가 ‘2019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시민의 장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추천 분야는 문화장과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 장 등 총 8개 부문이다.

추천 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다.

단, 애향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예외다.

추천 자격은 시 단위 각 기관장과 해당 분야의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 기업체 대표, 향우회장과 과소장이다.

추천 접수는 시청 총무과와 해당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들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올해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